

유럽 기독교 세계를 양분하는 지각 변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푸거는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좀 더 평범한 업적을 들자면 푸거는 알프스산맥 이북에서 처음으로 복식 부기를 도입했으며, 세계 최초로 여러 영업 결과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기도 했다(이 혁신 덕분에 푸거는 자신의 금융 제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늘 알 수 있었다). 감사관을 파견해 지점을 감독하게 한 것도 그가 처음이었다. 또한 푸거는 뉴스 서비스를 창시해 경쟁자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다 먼저 파악함으로써 언론의 역사에도 발자취를 남겼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 푸거는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푸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처음으로 돈이 전쟁과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푸거는 궁에서 살았으며 성을 여러 채 소유하기도 했다. 귀족 작위를 구입한 뒤에는 지도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될 정도로 드넓은 영지를 다스렸다. 그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목걸이는 훗날 엘리자베스 1세의 목에 걸렸다. 1525년 푸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재산은 유럽 내 총생산의 2퍼센트에 육박했다.² 이는 존 D. 록펠러조차 누리지 못한 부였다. 푸거는 역사책에 기록된 최초의 백만장자였다. 이전 세대 거부인 메디치 가문은 푸거와 거의 비슷한 가치의 통화를 사용했음에도 장부 총액이 다섯 자리에 불과했다. 푸거는 최초로 일곱 자리를 달성했다.

푸거는 광산업과 금융업으로 부를 쌓았으나 옷감과 향신료, 보석, 성유물(순교자의 뼈와 십자가 조각) 등도 판매했다. 한동안 유창목(매독 치료제로 알려진 브라질산 나무껍질)을 독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교황청 주화를 주조했으며, 스위스 교황 근위대 제1연대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푸거를 흉내 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중 아우크스부르크 출신의